

딱 1점 때문에... 아깝다! 세계新

광주시청 아쉽게 타이거(비공인)에 그쳐



21일 '대통령배 전국 남녀 양궁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 결승전에서 비공인 세계타이거(228점)를 쓴 광주시청 여자 양궁팀 박혜순 감독(왼쪽부터), 이특영, 이은진, 허윤정, 두기영, 박미경. 이날 기록은 박미경, 이특영, 이은진이 수립했다. /연립뉴스

대통령배 양궁 여자단체 우승...男 제일銀도 세계 타이거

베이징올림픽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 국내 양궁대회에서 비공인 세계 타이거기록이 2개나 쏟아졌다.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은 21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제2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양궁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한국토지공사를 228-216(240점 만점)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참가한 대회에서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록은 비공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2006년 8월 화랑기대회 고등부 인천 대표팀 기록과 같은 한국타이거이기도 하다.
3명이 각 엔드 2발씩 4엔드에 걸쳐 24발을 쏘는 가운데 광주시청은 1엔드부터 박미경(26)이 두발을 모두 엑스텐(10점 과녁 안에 그린 원)에 명중시키며 기선을 잡았고, 두 번째로 나선 이특영(19)도 두발 모두 10점 과녁에 꽂아 기록수립을 예상하게 했다.

모두 10점 과녁에 꽂아넣은 것은 물론 이 가운데 5발을 엑스텐에 명중시키는 신기(神技)를 발휘했고, 이특영은 10점 5발과 9점 3발을 쏘았다. 10점 1발, 9점 5발, 8점 2발을 쏘는 이은진(25)이 한번 더 10점 과녁에 맞췄다면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울 뻔한 셈이다.
여고부에서는 홍수남(광주체고 3)이 개인전에서 107점, 30m에서 356점을 명중시켜 2관왕에 올랐다. 박석진(광주체고 2)은 70m에서 333점을 쏘았으나 윤수원(원주여고)에 1점차로 동메달에 머물렀다.
여대부에서는 신은정(광주여대 3)과 기보배(광주여대 3)가 각각 30m, 60m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기보배·신은정·조혜

영·조소현(이상 광주여대)은 단체전에서 220점을 명중시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에선 우승도 못한 팀이 4강에서 비공인 세계타이거를 쏘았다. SC제일은행은 준결승전 서울시청과 대결에서 231-217로 이긴 뒤 결승전에선 상무에 221-224로 지며 2위에 그쳤다.
SC제일은행의 윤담현(19), 김석관(28), 김원섭(30)이 4강에서 총 231점은 지난해 7월14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 이창환, 김연철, 임동현이 쏜 세계기록과 같고, 지난해 6월 제25회 대통령배에서 SC제일은행이 수립한 한국 기록과도 동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회 D-9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에서 14년만에 열리는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개회를 위해 광주시청(사진)과 염주체육관,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에 꽃탑을 설치, 체전성공기원과 소년체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

광주 동성고 8강행

청룡기 고교야구

광주 동성고가 제 6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타선의 폭발로 부산고에 10-3으로 7회 콜드게임 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동성고는 2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부산고와의 16강전에서 5회에만 2개의 3루타를 포함 5개의 안타로 5점을 뽑으며 7회 콜드승으로 8강에 안착했다.
지난 17일 배명고와의 1차전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에이스 조우상은 이날 부산고를 맞아 7이닝 동안 8피안타 9탈삼진으로 3실점하며 대회 2승째를 올렸다.
동성고는 16강에서 배제고를 12-4 8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포항공고와 4강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된다. 경기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

추신수 첫 홈런

美프로야구 마이너리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좌타자 추신수(26)가 팔꿈치 부상에서 복귀한 뒤 마이너리그에서 첫 홈런을 터뜨렸다.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클리블랜드 산하) 소속인 추신수는 21일(이하 한국시간) 뉴욕주 버펄로 던타이어파크에서 열린 리하이밸리 아이언피그스(필라델피아 산하)와 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홈런 한개를 포함해 5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바이슨스에 합류한 뒤 6경기 만에 나온 첫 홈런이고 시즌 타율도 0.353까지 뛰면서 빅리그 승격 전망을 밝혔다.
버펄로는 연장 10회 접전 끝에 5-6으로 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화장이 들어서 있으며, 앞으로 1층 옥내외에 풀장과 스카시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또 레저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150실 규모의 골프텔도 2009년 개장을 목표로 연내 착공된다.
'레이크힐스 순천CC'는 오는 31일까지 1차 정회원 모집을 마감한 뒤 오는 6월 1일부터 2차 정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회원에게는 주말부킹 월 4회를 보장해주며 레이크힐스의 모든 네트워크 골프장과 골프텔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용 레이크힐스 순천CC 대표는 "회원전용코스는 회원을 동반하지 않으면 라운딩을 할 수 없다"며 "일반코스에 대해서도 회원이 추천한 팀에게 부킹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회원 제일주의를 앞세워 '호남의 대표적인 명문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061-746-9999)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팀 부진 아쉽지만 화려한 개인기록



KIA 이종범 1,500 안타 달성

프로 개인통산 8번째 대기록

'1천318경기 5천653타석 4천952타수 그리고 1천500안타'
지난 20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1회 말 선두타자로 나온 이종범(사진)은 롯데 선발 이용훈의 초구를 받아 좌전안타를 만들었다. 프로야구 통산 8번째 1천500안타가 달성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4월 2일 두산전에서 통산 31번째로 600타점의 기록을 완성했던 이종범은 이날 1천500안타라는 또다른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기록의 스포츠 '야구', 을 시즌 KIA 타 이거즈가 만들어가는 기록은 경기를 보는 즐거움 이외의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지난 3월 29일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김상훈은 5회 삼성의 에이스 배영수를 상대로 프로야구 시즌 첫 홈런을 장식했다. 이날 불명예 시즌 1호 기록도 나왔다. 신인 나지현이 1회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시즌 첫 삼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말장 승부' 돌입 된 2008시즌 KIA는 4월 8일 무등경기장에서 SK와이بن스와 10회까지 접전을 벌이며 시즌 첫 연장승부를 기록했다.
4월 23일에는 우리 히어로즈의 선발 장원삼에게 10탈삼진을 내주며 무4사구 완봉패를 당해 2시간 19분만에 경기가 끝나

며 시즌 최단 경기 시간이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투팀은 12회까지 가는 혈투를 벌여 전날 경기 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4시간44분 동안 경기를 치렀다.
최단 경기 시간기록은 5월13일 이범석과 송진우의 팽팽한 투수전에 힘입어 2시간 18분으로 1분이 단축됐다.
4월 29일에는 장성호-이종범이 도루에 성공하면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통산 3천200도루를 달성했다.
지난 18일 LG와의 광주 경기에서는 2-11로 뒤지던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져 강우콜드게임이 선언됐다. 올 시즌 첫 번째 강우콜드게임이자 통산 49번째 기록이었다.
개인의 영광스러운 기록도 쏟아지고

레이크힐스 순천CC 개장



록 다이아몬드 코스 3-6번을 제외한 대부분 코스에 OB(아웃 오브 바운드) 티를 없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고건축물의 곡선미와 현대건축물의 절제된 모던함을 강조한 클럽 하우스는 연건평 5천여평으로 단일면적으로는 동양 최대의 규모이며, 통유리를 통해 자연의 빛을 그대로 끌어들이는 친환경적인 2층 건물이다.
"2007년 아름다운 건축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자연친화적 건물로 캐나다에서 원목을 들여와 지었으며 구조제 제작은 일본, 조립은 국내에서 각각 이뤄졌다. 이곳에는 대형

순천시 주암면에 자리한 '레이크힐스 순천CC'가 최근 회원제 18홀 등 36홀을 갖추고 개장했다.(사진)
국내 최대 골프전문기업인 레이크힐스 골프&리조트 그룹은 국내 단일 골프장 중 최대 투자규모인 1천500여원을 들여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일원 70여만평 부지에 회원 전용 코스 18홀(파 72·7천130야드)과 일반 코스 18홀(파 72·6천803야드) 등 모두 36홀을 구성했다.
특히 36홀 전 홀을 양산디로 조성, 세계적 내내 용단같은 페어웨이에서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회원전용인 루비코스는 동선 자체가 크고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다이아몬드 코스는 섬세하고 아기가기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88개의 bunker와 크고 작은 해저드, 개천 등은 골퍼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주고 있으며 부담없이 라운딩을 즐길 수 있고

손님맞이 준비 '척척'

45개 경기장 개·보수 끝

'빛과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14년만에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31~6월 3일)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성공개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광주에서 소년체전이 치러진 후 14년만에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은 오는 31일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에서 개최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사상 최다인 1만6천81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32개종목(정식 30개, 시범 2개)에서 고강도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체전은 지난해 광주에서 성공리에 마쳤던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개회 경험을 살려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2개 종목이 치러질 45개 경기장은 지난 15일 개·보수를 완료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동광주 톨게이트 등에서 15개 시·도선수단 환영행사와 선수단 숙소안내를 통해 광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체전을 문화예술 체전으로 치르기 위해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 청소년 예술동아리공연 등 총 16회의 문화예술행사와 7건의 전시행사가 치러진다.
이외에 참가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우고 광주의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133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을 체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여자배구 2승2패

베이징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 한국 여자배구가 강호 폴란드에 꺾여 두 게임은 내리 잃었다.
한국은 21일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폴란드와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16-25 19-25 15-25)으로 완패했다. 푸에르토리코와 태국을 꺾은 뒤 세르비아에 두너진 한국은 이로써 2승2패가 돼 8개팀 가운데 4위를 유지했다.
8개국 풀리그로 치러지는 대회에서 올림픽 티켓은 전체 1위와 아시아 1위, 이들을 제외한 1,2위 4개국에 주어지며 한국은 24일 카자흐스탄과 25일 도미니카 공화국만 잡으면 티켓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